

기독교철학적 상상력으로 다시 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만난 자에서 사마리아인으로—

이경재(백석대학교 기독교철학)(철학/세계관 6-1)

국문초록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한 기존의 해석들은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 적절한 대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이 논문은 이 비유에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발견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동시에 이런 해석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통상의 가르침과 어긋나거나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르침을 강화한다는 것도 보여준다.

이를 위한 논의전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누가 내 이웃이냐는 질문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의 질문이다. 둘째, 위험에 빠졌을 때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이다. 셋째, 그러므로 이웃사랑은 곧 나를 도와준 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강도만난 자의 경우에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넷째, 사마리아인이 또 다른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 도움의 손길을 거드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강도만난 자의 마땅한 일이다. 다섯째, 그러다보면 강도만난 자가 자연히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돕는 자인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이 비유의 핵심은 한 마디로 ‘강도만난 자 선한 사마리아인 되기’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비유, 이웃사랑, 강도만난 자, 선한 사마리아인

I. 서론

예수님의 비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 연구서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소개하면서 이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지고 또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이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아직 통일된 해석이 산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한다.¹⁾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 되라는 정도의 정형화된 교훈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이 비유에 관한 해석이 다양할 수도 있다는 것 자체가 의아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 비유의 주된 메시지에 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공존함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는 방식 자체에 관한 이견들도 있어왔지만,²⁾ 여기서 말하는 해석의 다양성이란 각 비유들에는 저마다의 주된 메시지가 있다는 소위 비유적 해석의 방식을 취하는 연구들 사이의 다양성이다.

그런데 해석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은 대체로 다음 한 가지 점에 관해서만은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비유의 위치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의 자리이지만, 내용 면에서 볼 때 이 비유는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 대답을 함의하거나 의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한 마디로 ‘누가 내 이웃입니까?’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³⁾

- 1) 최갑중(2001), 108쪽. 이 책 107쪽에서 108쪽의 대부분에 걸쳐 있는 각주1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한 최근의 중요 연구들 목록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한편, 이 비유의 메시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쉽게 접근하도록 해 주는 좋은 글들이 있다. 김관임(2007)은 볼트만, 다드, 용엘 등의 견해를 정리하고 있으며, 위츠비커(Anna Wierzbicka, 2001)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이웃’이라는 입장을 전통적 해석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해석 이외의 다양한 여러 입장들을 정리·소개하고 있다.
- 2) 비유의 해석방식은 크게 알레고리적 해석과 비유적 해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최근에는 신해석학적 관점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들의 특징 및 차이에 대한 간결하면서도 명료한 설명은 다음 글 참조. 김춘기(1998), 107-110쪽 참조
- 3) 기존의 여러 해석들은 다양하고도 미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이 비유를 완전히 독립적인 별개의 것으로 보려는 입장인데, 김득중이나 스캇(B. B. Scott)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이 비유가 예수님에 의해 의도적으로 변경된 대화의 주제를 위해 제시되었다고 보는 입장으로서, 이는 다시금 예수님이 주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나뉜다. 예레미야스(J. Jeremias)는 예수님이 사랑의 대상에 대한 물음을 사랑의 주체에 관한 이야기로 변경하신다고 보면서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네 친구”라고 하는 전통적인 해석을 제시한다. 김관임, 김창락, 와킨스(D. Watkins), 켈러(T. J. Keller) 등을 비롯하여 율법사는 이웃을 정의하기 바라는 데 비해 예수님은 이웃사랑의 정의를 제시하려 했다는 웬햄(D. Wenham)이나, 이웃을 구별하기 보다는 ‘이웃됨’(neighborliness)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려 했다는 버트릭(D. Brtrick) 등의 견해는 모두 예레미야스 해석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박수암, 김춘기, 스캇, 케이폰(R. F. Capon), 영(B. Young)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 지닌 난점들을 여러 각도에서 지적하면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어느 경우이든 이 모든 해석들은 이 비유에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의 질문이 대답되지 않는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한다. 여기 언급된 저자들의 연구에 대해서는 참고문헌 목록 참조.

이 논문은 바로 이 점에 대해 질문을 던지려고 한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오늘날의 우리들 누구나 진지하게 던질 수 있는 질문 즉 ‘누가 내 이웃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적절한 대답을 제공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논점이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는 본문의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러한 해석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비유의 메시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

II. 본문의 구조 읽기

먼저 이 비유를 포함하고 있는 누가복음 10장 25-37절-편의상 이를 <본문>이라고 부르자-의 장면 전체를 제시해 보자.

<본문>

- 25)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질문1)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이까
-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되물음1)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 27) 대답하여 가로되 (대답1)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1')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 29)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질문2)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 31)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 32)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 33)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 34)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 35)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 36) (되물음2)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 37) 가로되 (대답2) 자비를 베푸는 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분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 묻는 부분으로서 25-28절까지에 해당하고, 둘째 부분은 율법사가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부분으로서 29절에서 37절까지의 부분이다. 두 개의 질문이 율법사와 예수님이 만나 이루어내는 전체 장면의 두 부분을 구성한다. 자연스럽게 각 부분의 내용은 각 질문에 대한 대답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본문을 질문과 대답을 중심으로 발췌하여 요약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문답요약>

질문1)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5절)

되물음1)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26절)

대답1)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7절)

대답1')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28절)

질문2)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29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30-35절)

되물음2)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36절)

대답2) 자비를 베푸는 자나이다 (37절)

이 두 질문은 병렬적 관계라기보다는 종속적 관계다. 둘째 질문은 첫째 질문의 대답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첫째 질문의 대답은 구체적 행위의 명령 즉 '사랑하라'는 명령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이 대답을 대답으로만 받아들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로 실행에 옮기려 할 경우, 필연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생긴다.

'사랑하다'라는 동사는 '말하다'나 '껴안다' 등의 동사와는 달리 그 자체가 구체적 행위를 직접 지시하지 않는다. '사랑하라'는 행동 자체를 실행에 옮길 수는 없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다르거나 심지어는 상반된 유형의 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혹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용서와 징계가 모두 사랑 때문일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수행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지닐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 사랑을 하는 것인지를 묻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 있다.

'사랑'이라는 행위 자체 못지않게 그 대상인 '이웃' 역시 질문의 대상일 수 있다. '하나님 사랑'의 경우와는 달리 '이웃사랑'의 경우는 그 대상이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영생으로 가는 필수 관문이라면, 이웃이 누구인가의 질문은 '이웃'의 의미를 규정하려는 직접적 관심을 넘어서 '영생'이라는 첫째 질문을 달성하기 위한 관심 하에서 필수적이다.

실제로 종속적 위치에 있는 질문2)는 율법사가 대답하고 예수님이 확증하는 대답1)의 내용이 달랐다면 던져지지 않았을 질문이다. 예를 들어 대답1)이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다면, 당연히 질문2)는 없었을 것이다. 이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질문2)에 대한 대답은 대답1)의 내용에 대한 보충으로서 그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질문1) 즉 영생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질문2) 이전과 이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되어 정리될 수 있다.

질문2) 이전의 대답 :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질문2) 이후의 대답 :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 즉 ~'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위의 본문은 두 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하나의 질문 즉 질문1)을 다루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형식적 측면을 볼 때, 모든 문법적 종속절이 그러하듯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직접적으로는 대답2)와 관련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대답1)의 부분으로 삽입됨으로써 그 대답을 더욱 충분하고 적절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한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이끌어내어진 대답2)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상당히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질문2)와 대답2) 사이의 묻고 답하는 관계는 전혀 어색하지 않게 이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

질문2)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29절)

대답2) 자비를 베푸 자니이다 (37절)

물론 여기서 질문자와 대답자가 동일한 인물 즉 율법사라는 점이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선생과 학생의 관계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질문자 스스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것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리고 대답2)의 도출 배경이 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염두에 둔다면, 대답2)의 내용은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자가 바로 이웃’이라고 부연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질문2)와 대답2)를 대답1)에 대한 보충으로 이해할 경우, 본문 전체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누가 묻고 누가 대답했는가에 상관없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 진행되는 내용만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 문답구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구조요약>

문)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 구체적으로 누구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까?)

답) 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 너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

그리고 질문2)는 원래 질문1)에 대한 대답1)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본문 전체의 질문과 대답은 다음과 같은 주제 문답으로 요약될 수 있다.

<주제요약>

문)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 너를 도와준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부분을 포함하는 질문2) 이하의 논의내용은 ‘이웃’이 누구인지를 규정하기 위한 보충적 논의임이 분명해진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라는 율법사의 질문은 형식적

인 측면에서 볼 때 정확하게 대답되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그 질문의 최초 동기 즉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해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다 선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주제나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본문에서 전개되는 논의의 흐름 자체만을 주목할 경우 큰 어려움 없이 이끌어낼 수 있을 듯 보이는 위의 구조요약과 주제요약은 많은 기독교인들로부터 그다지 쉽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로 적어도 두 가지를 말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나를 도와준 자가 나의 이웃’이라는 결론이 심리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사랑과 희생으로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는 기독교의 가르침 때문인지,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읽을 때조차도 도움을 받은 자의 입장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자의 입장에 서려는 경향을 보인다.⁴⁾ 다른 하나는 율법사의 대답²⁾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명령 즉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37절 후반부의 명령 때문이다. 흔히 이 명령은 ‘강도만난 자처럼’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것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남을 도와주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지므로, 위의 구조요약이나 주제요약과는 잘 어울리지 않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본문을 위의 구조요약이나 주제요약처럼 해석하면서도, 동시에 사마리아인을 본받아 도움이 필요한 자라면 누구든 간에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메시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강도만난 자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비유를 해석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기존의 해석들이 말하는 가르침과 충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강화하는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를 본격적으로 논증해 보자.

III. 비유의 해석 및 관련된 문제들

1. 질문 변경의 문제

여러 해석들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려는 것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절한 대답은 아니었다고 한다. 예수님은 율법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주제로의 논점변경을 의도하셨다는 것이다. 과연 그랬을까? 우선 이 점을 점검해 보자.

질문자인 율법사가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 것인가를 헤아려 보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던지는 그의 의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에서 이 대화를 시작했다고 전한다(누가복음10:25). 다시 말해 율법사의 질문은 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흠을 잡기

4) 버나드 브랜든 스캇은 청중들이 등장인물 가운데 사마리아인과 동일시하려는 이유를 영웅의 역할을 수행하고 싶어하는 욕구와 연결시킨다. 그러면서 바로 이 때문에 유대인은 갈등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한다. 영웅적이고는 싶지만, 유대인은 자신을 사마리아인과 동일시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독자들도 역시 강도만난 자가 아니라 사마리아인의 입장에 서려는 경향을 스캇의 이러한 지적에 비추어 반성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버나드 브랜든 스캇, 위 책, 108-109쪽 참조.

위한 것, 혹은 한 수 아래의 상대를 향한 테스트에 불과했다. 만약 예수님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한다면, 율법사는 넉넉한 마음으로 인정해 줄 아량을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행은 율법사의 의도처럼 되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의 ‘되물음’을 통해 율법사 스스로가 자신이 아는 것을 예수님께 확인받는 형국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주도권이 예수님 쪽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위 문답요약의 질문1) 대한 대답에 대해서는 율법사와 예수님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렇다면 질문2)에 대해서는 어떤가? 본문 자체에는 율법사와 예수님 사이의 견해차이로 인한 갈등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견의 대립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질문1)의 경우 제출된 대답은 누가 대답을 했든 간에 상관없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었고,⁵⁾ 따라서 갈등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질문2)의 경우는 어느 쪽의 대답이든 간에 상대방이 순순히 그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다. 갈등은 잠재되어 있었고, 그 표출은 시간문제였다. 누군가가 자신의 견해를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신호다. 그런데 대화가 중단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표출되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제시된 해답의 내용은 예수님의 것이었지만, 그것을 실제 입으로 시인한 사람은 율법사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구사하시는 대화법의 탁월함이다. 율법사로 하여금 율법사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대신 말하도록 한 것이다. 율법사의 원래 의도대로라면 예수님이 자신의 모범 답안과는 다른 대답을 할 경우 그의 무지를 비난할 수 있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대답이 예수님의 입이 아니라 자신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대답을 이유로 예수님을 비판할 수가 없었다. 더욱이 그 대답은 율법사에게 완전히 낯설거나 억지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얼떨결일지언정 율법사 스스로의 판단을 통해 도출해 낸 것이며, 그럴 수 있었을 만큼은 자기 자신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었다. 예수님은 율법사가 이미 이해하고 있거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 하지만 율법사 혼자였다면 결코 그런 식으로는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을 그런 내용을, 이 기회를 통해 스스로 생각하여 시인하도록 유도한 것이다.⁶⁾

예상치 못했던 내용의 대답이었고 그래서 당황스러웠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사는 그 대답이 자신의 질문에 대한 매우 적절한 대답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질문은 그게 아니다’라고 항변할 수는 없었던 그런 대답이었다. 예수님은 논점을 변경한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제시된 질문 자체를 너무나도 정확하고 적합하게 다룬 것이다. 막상 율법사는 자신의 질문을 진지하게 다룰 의도가 없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기회를 통해 오히려 그것을 아주 진지하게 다루신 것이다.

5) 형식과 맥락은 다르지만 대답1)의 내용은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 이 대답은 율법을 인용하는 방식이므로, 누가 대답하느냐와 상관없이 문제삼을 수 없는 것이었다. 마태복음22:36-40; 마가복음12:28-34 참조.

6) 자신의 생각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자각하도록 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답을 유추해 내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대화법은 소크라테스의 산파술(maieutike)을 닮았으면서도 그것을 넘어선다.

2. 예수님의 대답 방식

일반적으로 ‘이웃이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처럼 대상을 분별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개인 혹은 집합을 거명하는 식으로 그 대상을 직접 지시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그 대상을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반 기준인 용어의 개념적 의미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누가 적인가의 물음에 ‘김OO’ ‘A나라 사람들’ 등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전자라면, ‘우리를 공격하는 자’ ‘우리 편에 내분을 일으키는 자’라는 식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후자다. 간혹 대상의 지시에 의한 대답이 일반 기준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⁷⁾ 일반적으로 대상의 지시는 사실상 특정 관점에서 일반 기준을 구체적 대상들에 적용하여 판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는 판단의 일반 기준인 용어의 개념적 의미가 그 적용인 대상의 지시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둘이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개념적 의미는 말하면서 그 구체적 적용사례를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개념적 의미 자체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숫수’의 정의는 말하면서 ‘2’가 숫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그 정의를 암기는 하였을지언정 이해하지는 못한 것이다. 이 점은 ‘숫수’든 ‘이웃’이든 또는 ‘선’이나 ‘악’ ‘자유’ ‘정의’ 같은 개념들이든 마찬가지다. 그것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개념적 의미와 그 적용 모두를 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누가 이웃인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선적으로는 ‘이웃’의 개념적 의미를 제시하는데서 시작하지만, 나아가 그 개념적 의미가 특수한 경우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의 충분한 대답일 수 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과정을 밟아 나가신다.

7) 아무 왕래도 없는 ‘옆집사람’을 ‘이웃’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의 질문으로 인해 ‘이웃’에 대한 개념규정을 새로이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가 단적인 예다. 소위 패러다임 쉬프트(paradigm shift) 역시 일반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예외 사례들의 누적에 따라 일반 이론 자체가 변화되는 경우와 관련된다. 이런 예는 성경 안에서도 발견된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에 대한 논쟁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전 기준으로는 그에 포함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포함되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기준 자체가 재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8:39이나 갈라디아서3:7은 그 개념적 의미를 새롭게 정비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1) 시선의 다각화를 통한 일반화 유도

우선 누가 이웃인가를 묻는 율법사의 질문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되물음을 보자.

율법사 :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질문2)

예수님 : 누가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되겠느)냐? (되물음2)

율법사의 질문에서 ‘이웃’을 판별하는 기준은 율법사 자신 즉 ‘나’이다. 이에 비해 예수님의 되물음에서 판별의 기준은 ‘강도만난 자’이다. 율법사가 ‘내 입장에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라고 물었다면, 이에 대해 예수님은 ‘강도만난 자의 입장이라면 누가 그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되물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사가 말하는 ‘내 이웃’은 예수님이 말하는 ‘강도만난 자의 이웃’에 해당하게 된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비유에서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것을 다시금 ‘내 이웃’의 규정에 적용해 보라고 권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 당연히 이 비유는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강도만난 자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대화의 이러한 전개는 논점이나 관심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문에 적절히 대답하기 위해 논의를 일반화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율법사의 입장에서만 고려할 경우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언급한대로 개념의 제시에 의할 수도 있고 대상의 지시에 의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강도만난 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게끔 관점을 다각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논의를 개념의 제시 쪽으로 이끌어간다.

구체적인 대상을 고려할 경우 율법사의 이웃에 해당하는 인물들과 강도만난 자의 이웃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지만, 누군가가 율법사의 이웃인 이유와 또 다른 누군가가 강도만난 자의 이웃인 이유는 같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두 경우 모두에 ‘이웃’이라는 개념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나의 아내와 너의 아내는 다른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아내와의 관계와 너와 네 아내와의 관계 사이에는 이 두 관계 모두를 ‘부부’로 묶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동질성이 있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이웃’ 역시 누군가의 이웃이 누구이든 간에 그들 사이의 관계에는 동질성이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관계의 동질성이 바로 ‘이웃’이든 ‘부부’나 ‘사제지간’이라고 하는 관계 개념의 본질을 구성하는 개념적 의미이다. 결국 율법사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되물음은 관점의 변경을 통해 시선을 다각화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이웃’의 개념적 의미 즉 이 용어가 함의하고 있는 관계의 동질성을 고려하도록 이끄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되물음의 산파술 - 대답의 유도를 통한 논쟁의 소멸

한편 예수님의 되물음2)는 예수님이 의도하는 ‘이웃’ 개념에 대한 일반 규정을 율법사가 자발적으로 시인하게 한다. 이 대화에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의 물음은 대상의 지시를 요구하는데 반해, 율법사의 대답은 특정 대상을 이웃으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 혹은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예수님 :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되겠느냐 (되물음2)

율법사 :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대답2)

예수님은 ‘이 셋 중에’ 누가 이웃인지를 물으신다. 여기서 ‘셋’은 주지하다시피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다. 이 물음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적절한 대답은 그 중 한 사람을 지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하는데, 이 대답과 쌍을 이루는 성경의 표현은 제사장과 레위인 둘 모두에게 사용된 ‘보고 피하여 지나간 자’(31절, 32절)이다. 예수님은 셋 중의 하나를 물으셨는데, 율법사는 둘 중의 하나로 대답을 했다. 예수님은 특정인의 관점에서 특정 대상을 지시하도록 질문하셨는데, 율법사는 이 경우 그 특정 대상을 이웃으로 지시해야 하는 이유를 말함으로써 이웃 개념 일반을 제시하고 있다.

질문과 대답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문제될 만큼은 아니다. 더욱이 이 불일치는 예기치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상당히 정교하게 계산된 예수님의 대화법의 결과일 수도 있다. 사실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지목하고 싶지 않았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럴 수 없었다. 반면에 평소 같았으면 가장 먼저 이웃의 예로 손꼽았을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여기서는 제외시킬 수밖에 없었다. 내키지는 않았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비유를 통해 상황을 설정하셨다. 하지만 그 이유를 율법사에게 강요하지는 않았다. 율법사에게는 ‘이웃’이라면 마땅히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 상황을 제시해 주었을 뿐이다.

예수님이 제시한 상황을 고려할 경우, 율법사의 생각에 이웃이란 한 마디로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할 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누군가의 이웃이라면 그가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결코 그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누군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그를 외면하는 사람은 결코 그의 이웃이라고 할 수 없다. 신분과 지위, 명망과 인품과 평소의 존경 등은 평상시에 참고할만한 요소일지언정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이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그 상황을 그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의해 판단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자신의 이런 견해에 충실할 경우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지목해야만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김양현(1997, 135쪽) 등이 지적하는 것처럼 유대인인 율법사는 ‘이웃’

이라는 용어를 ‘사마리아인’과 연결시키기를 꺼려했을 수 있고, ‘자비를 베푸 자’라는 그의 대답은 이러한 심리적 저항에 기인한 순간적인 궁여지책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율법사의 이 대답은 ‘이웃’에 대한 일반적 개념규정 뿐 아니라 왜 주어진 상황에서 이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일 수밖에 없는지의 이유도 명쾌하게 설명해 준다.⁸⁾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는 대답을 설명까지 곁들여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율법사의 위 대화는 다음과 같은 대화의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 :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되겠느냐)나 (되물음2)

율법사 :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 : 왜 그렇지?

율법사 : 그가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대답2)

이렇게 펼쳐놓을 경우, 누가 이웃인가의 질문이 충분히 대답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두 측면의 논의 즉 ‘이웃’이라는 용어의 정의 혹은 개념적 의미와 그것의 적용 사례 모두가 이 대화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다시 말해 여러 가능한 후보들 가운데 누가 이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가 이웃으로 지시되어야 하는 이유 즉 판단의 기준에 대한 설명 모두를 이 대화는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그의 이웃’이라고 것, 그리고 이 기준은 누구의 입장에서든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고려하든 간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3) 대답의 적합성 문제

이제 이 기준을 적용해 보자. 대화에 분명히 나타나듯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그에게 도움을 베풀은 사마리아인이다. 율법사에게 이웃은 누구인가? 율법사가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 그의 이웃일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이웃은? 내가 어려워져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곧 나의 이웃이다. 누구의 입장에서든 그의 이웃은 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지 않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웃 개념을 일반화하여 적용하다 보면, 이 비유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 부분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몇몇 해석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모두가 나의 이웃’이라는 것

8) 이 외에도 ‘사마리아인’이라는 대답 대신에 주어진 ‘자비를 베푸 자’라는 율법사의 대답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지적하고 있다. Arland J. Hultgren(2000), p.99; David Wenham(1989), p.158; Brad H. Young(1998), p.117-8 등 참조. 특히 Brad Young은 누군가에 대한 평가는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오직 그의 ‘행위’에 의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고 강조한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주로 ‘심지어 사마리아인마저도’라는 식의 표현과 더불어 편견과 차별의 극복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흔히 상당한 도덕적 설득력을 얻기도 한다.

하지만 편견이나 차별을 넘어서야 한다는 도덕적 당위와 이웃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웃인데 이웃으로 인정하거나 대하지 않으면 편견이요 차별일 수 있다. 하지만 편견과 차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웃과 이웃 아닌 사람의 구별 자체—적어도 개념적 규정상의 구별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 이웃사랑도 명령이고 원수사랑도 명령이기 때문에 ‘이웃=원수’이며 이들 사이의 구별 자체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해석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이웃됨’의 이유를 ‘도움이 필요함’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마음에 새겨야 할 좋은 가르침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이웃’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개념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다’라는 것은 같은 것일 수 없다.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나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나를 도와준 자’와 ‘내가 도와주어야 하는 자’는 ‘나’를 기준으로 볼 때 개념상 완전히 반대의 관계를 말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 두 부류 모두가 이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의 이웃인가 아니면 나의 이웃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같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가 명령하는 것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도와준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이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석이 널리 회자되는 이유는 율법사의 대답²⁾ 이후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 즉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누가복음 10:37)”는 명령 때문이라고 보인다.

예수님의 되물음²⁾는 분명히 도움을 베푸는 자인 사마리아인의 입장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자인 강도만난 자의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율법사의 대답²⁾ 역시 강도만난 자의 입장에서 누가 이웃인지를 말하고 있다. 대화의 흐름에서 기준이 되는 관점은 분명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강도만난 자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에서 ‘이와 같이’를 ‘강도만난 사람처럼’으로 해석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명령인지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이보다는 오히려 ‘이와 같이’를 ‘사마리아인처럼’과 연결시켜서 ‘너도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간에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명쾌해 보일 수

있다. 게다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야 말로 이웃사랑의 실천과 관련해서 추구하고 성취해야 할 보편적 박애정신의 주창과도 연결된다. 여러 모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은 강도만난 자의 입장에 서라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의 입장에 서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이전의 대화 내용과의 일관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율법사의 입장도 강도만난 자의 입장도 아닌 사마리아인의 입장이 갑자기 대두되는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는 율법사의 질문2)에 대한 대답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이유도 어느 정도는 이와 관련된다고 보인다. 예수님의 명령이 일관성을 상실한 이유 없는 비약이 아니기 위해서는, 앞서의 대화 자체가 바로 이 명령을 향해 수렴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을 푸는 열쇠는 모두 예수님의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이와 같이’의 해석과 관련된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의 의미를 좀 더 고려하기에 앞서, 우선 2장에서 제시된 문답요약과 구조요약을 염두에 두고 본문 전체의 논의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자. 문제의 출발은 영생에 관한 율법사의 질문1)이었고, 이를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누가 이웃인가를 묻는 질문2)는 사랑의 대상인 ‘이웃’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보충질문이다. 예수님의 비유와 되물음 모두 이를 위한 것이다. 한 마디로 ‘누가 내 이웃입니까?’의 질문은 ‘내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의 질문이다. 그러므로 본문은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된 기존의 해석에 의하면 본문은 ‘사랑하라’가 아니라 ‘도와주라’는 명령으로 끝난다. 물론 이 둘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자가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사랑할 대상과 도와줄 대상은 개념적으로는 결코 동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사랑하라’는 것으로부터 ‘도와주라’는 것으로의 이행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일까? 적어도 본문에서는 그러한 의도적 이행을 읽어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행이 말할 수 있는 유일하게 설득력 있는 이유는 아마도 그 이행을 말하지 않고서는 본문의 해석 자체가 어렵다는 정도일 것이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하라’의 해석이다. 예수님의 명령은 능동적 행위에 대한 명령인 반면, 이 비유 속의 강도만난 자는 강도를 당하고 도움을 받는 등 시종일관 수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이 명령이 ‘강도만난 자 같이’로 이해되기가 어렵다. 반면에 ‘사마리아인 같이’로 이해될 경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능동적 행위에 대한 명령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로부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식의 논리를 통해 ‘도와주라’에서 ‘사랑하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사랑의 대상을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아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가리지 말고 도와주어라. 이것이 곧 사랑이다’라는 것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보다는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라는 물음

에 보다 더 적절한 대답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랑하라’로부터 ‘도와주라’로의 이행을 말하지 않고도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어쩌면 너무나도 단순한 해결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웃이 누구냐는 율법사의 두 번째 질문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답에 대한 보완질문임을 염두에 둔다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 너를 도와준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치환될 수 있다. 이러한 치환을 염두에 두고 본문의 대화를 다음과 같이 밑줄 부분을 추가하여 구성해 볼 수 있다.

예수님 :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되겠느냐 (되물음2)

율법사 :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 : 왜 그렇지?

율법사 : 그가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대답2)

예수님 :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강도 만난 자는 누구를 사랑해야 하느냐?

율법사 :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즉 강도 만난 사람이 해야 하는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의 명령인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에서 ‘이와 같이(likewise, homoios)’의 품사는 부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특정인을 지시하는 것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또는 ‘이 경우에서처럼’ 정도로 이해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이와 같이’는 넓게는 ‘지금 비유를 들어 말한 이런 상황에서처럼’의 의미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비유의 상황에서라면 강도 만난 자가 누구를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지에 비추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한 마디로 ‘네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너를 도와주는 자를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다’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 명령은 사랑에 관한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진실성 문제를 제기한다. 나를 도와준 자는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랑이 진실일 수 있느냐고 이 비유는 묻는 것이다. 강도 만난 자에게 도움은 그가 기대했던 곳이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 왔다. 이웃인 줄 알았는데 이웃이 아니었고, 이웃일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이웃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강도사건이라는 일회적 사건을 통해 드러나기는 했지만, 그 결과는 일회성에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보통의 사람이라면, 회복된 이후에 그는 누구와 이웃으로 지내야 마땅한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등장인물 특성은 이러한 상식적이고 단순한 진리가 선입견과 편견과 여론에 의해 얼마나 쉽게 왜곡되고 가려지는지를 돌이키고 반성하게 해주는 극적인 장치다.

VI. 강도만난 자에서 사마리아인으로

강도만난 자가 이전에는 사랑하지 않았을 사마리아인을 이제는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이러한 해석은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해석의 올바름 문제 이전에 ‘선한 사마리아인을 본받고 따라야 한다’는 전통적 가르침의 가치를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도만난 자가 이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할 경우, 선한 사마리아인을 따라야 한다는 기존의 가르침을 부인하기 보다는 오히려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마리아인을 사랑하려 하는 한 그가 하는 일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여 할 것이고, 그가 또 다른 강도만난 자를 돕는 일을 계속하는 한 그 일 역시 거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도와준 자 즉 사마리아인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충실히 따를 경우, 강도만난 자는 결국 사마리아인이 베푸는 도움의 손길을 돕기 위해서라도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베푸는 자의 모습을 떨 수밖에 없다. 강도만난 자는 누군가 또 다른 강도만난 자에게 이 비유의 인물들 가운데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굳이 ‘사마리아인 같이’로 비약시키지 않고 대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 ‘강도만난 사람 같이’로 해석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마리아인 같이’ 행하라는 명령으로 귀결된다. 한 마디로 이 명령은 강도만난 자로 하여금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는 명령인 셈이다. 그 결과는 기존의 해석들과 유사해보여도 그 출발점은 완전히 다르다. 기존의 해석이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이웃사랑의 실천을 시작하려 한다면, 이 해석은 그 실천을 강도만난 자의 입장에서 시작하려 한다. 전자는 자신을 사마리아인과 동일시하여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인 반면, 후자는 자신을 강도만난 자와 동일시하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출발선상의 이러한 차이로 인해 몇 가지 측면에서 일반적인 경우와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드러낸다.

우선 도움의 이유나 동기가 다르다. 강도만난 자가 누군가를 돕는 이유는 그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사마리아인이 그를 돕고 있기 때문이다. 동기가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돕는 데 대한 공로나 칭찬 역시 강도만난 자에게가 아니라 사마리아인에게 돌려져야 한다. 둘째로, 대상의 선별 즉 누구를 도울지 역시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돕느냐에 따라 결정될 뿐, 그가 누구인지, 얼마나 절실히 그리고 어떤 종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등의 일반적 기준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셋째, 그러나보니 자신의 의사나 욕구에 반대되는 경우를 순순히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쉽게 생각하자면 강도만난 자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가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돕는 사람들만 도우면 되지만, 그것은 곧 사마리아인이 돕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도와야 하는 짐을 지는 것이기도 하다. 넷째, 도움의 이유와 대상 모두가 사마리아인 때문이므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무관할 수 있어야 한다. 감사한다고 좋아할 일도, 감사하지 않는다고 화낼 일도 아니라는 말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도울 힘과 도울 자원과 도울 의지가 있을 때 돕고 싶은 대상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또 그 반응과 효과와 효용성을 검토하면서 도

움의 지속이나 확대 혹은 중지여 되먹임을 하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사뭇 다른 태도이다.

결국 강도만난 자의 입장에서 출발할 경우 문제의 핵심은 한 가지로 요약된다. 사마리아인에게 얼마나 진실하고 충실한가 하는 것, 다시 말해 사마리아인을 향한 강도만난 자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가의 문제다. 그러므로 이 입장에서 해석할 경우 본문의 가르침은 ‘너의 진정한 이웃 즉 너를 도와준 사람을 변치 말고 한결같이 진실하게 사랑하라’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 결론은 자연스럽게 그 진실함의 대상, 비유의 예에서는 사마리아인이 과연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즉 전적으로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인지의 물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진실함은 상대적인 것이므로, 그에 합당한 맞상대 없이 일방적으로 한 쪽에만 진실함만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너나할 것 없이 불완전한 인간들의 모습을 볼 때 이러한 반문은 정당하기도 하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선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비유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과 동일시할 수 있다면, 강도만난 자에서 출발하는 해석은 논의전개의 논리적 맥락에서 뿐 아니라 가르침의 내용 측면에서도 동의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라고 가정하는 것과, 사마리아인이 실제로 예수님인 것과는 다르다. 만약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본문 자체가 만약 너의 도움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서 온다면 차라리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이 적어도 진실한 것 아니겠느냐고 도전하기 때문이다. 본문이 던지는 이 도전 앞에서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심지어 가족보다도 우선해야 한다고(마태복음10:37, 누가복음14:26)-당당하게 항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를 도운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님이 곧 사마리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본문이 독자들에게 제기하는 진정한 도전은 바로 이 고백이 우리 각자의 고백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의 진정한 핵심은 ‘너를 도와준 자를 사랑하라’라는 일반적인 윤리적 명령이 아니라, 이 명령을 실천하려 할 경우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질문 즉 나를 도와준 이가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본문은 ‘누가 너를 도와주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는 ‘너의 도움은 예수님인가?’를 묻는다. 물론 그 이면에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 즉 ‘당신은 강도만난 적이 있는가?’의 질문이 은연중에 깔려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비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우리가 거둬난 자인지, 즉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사망에서 건져져 새 생명을 얻는 자인가를 묻기까지 하는 셈이다. 이론적으로는 쉬운 문제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 도전들이 요구하는 대답은 이론에 진정성을 부여하면서 미래의 가정적 상황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실제 상황에서 베풀어진 그의 도우심에 대한 체험에 바탕을 둔 대답이어야 하므로, 결코 가볍게 다룰 수는 없는 문제

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명령이 ‘사마리아인 닳기’가 아니라 ‘강도만난 자 사마리아인 되기’를 내용으로 하는 명령이라는 관점에서 전개된 이상의 논의는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나를 희생하면서 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를 향한 사랑이야말로 내가 사랑해야 마땅한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는 그런 의미다. 누군가를 없이 사심 없이 도와줄 수 있는 이유 역시 그들을 도우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인 것이다. 이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에 나타나는 구도와도 일치한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만약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즉 그의 양을 먹이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다. 베드로가 양을 먹여야 하는 이유는 양을 먹이려는 그 자신의 선한 의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으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의 여부는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가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일반 원리에서 예외가 되는 특이한 일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 즉 그의 양을 먹이는 일을 베드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본문의 표면적 메시지는 ‘너를 도와준 자를 진실하게 사랑하라’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며,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실천적 명령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 이 논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라는 율법사의 질문이 적절하게 대답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해석과 달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부터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하고 적절한 대답을 발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대답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라는 통상의 가르침과 어긋나거나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르침을 강화하고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도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전개는 본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누가 내 이웃이냐는 질문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의 질문이다. 둘째, 위협에 빠졌을 때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이다. 셋째, 그러므로 이웃사랑은 곧 나를 도와준 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강도만난 자의 경우에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넷째, 사

마리아인이 또 다른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 도움의 손길을 거드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강도만난 자의 마땅한 일이다. 다섯째, 그러다보면 강도만난 자가 자연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돕는 자인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서 이 논문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강도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그가 마땅히 해야 할 바처럼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을 논했다. 강도만난 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에 마땅하게 행할 경우 자연스럽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도 보여주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명령은 무작정 사마리아인을 본받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강도만난 자로 하여금 사마리아인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논증했다. 결국 이 비유의 핵심은 한 마디로 ‘강도만난 자 선한 사마리아인 되기’라고 할 수 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이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할 일을 가르치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묻고 계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득중(1987),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연구” 『신학과 세계』, Vol. 15 (감리교신학대학교), 239-268.
- 김득중(1988), 『복음서의 비유들』, 키클디아사.
- 김양현(1997),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웃사랑에 관한 연구 - 누가복음 10장 25-37절을 중심으로” 『한국전문대학기독교교육학회 논문집』 Vol. 1 (창간호), 121-140.
- 김창락(1997), 『귀로 보는 비유의 세계』, 한국신학연구소, 189-218.
- 김춘기(1998), “신해석학(The New Hermeneutic)에 따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의미” 『신학과 목회』 제2집 (영남신학대학교), 107-114.
- 김광임(2007),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10:30-35) 연구” 『신학논단』 제14권 제4호 (한국신약학회), 1015-1052.
- 테럴 와킨스(2003), 『기독교 사회봉사 입문』, 노영상 옮김, 콤파출판사.
- 박수암, “‘선한 사마리아사람’ 비유 해석에 대한 재고” 『기독교사상』 1981년 9월호 144-154.
- 버나드 브랜든 스캇(2006), 『예수의 비유 새로 듣기』, 김기석 옮김, 한국기독교연구소.
- 요하킴 예레미아스(1974), 『예수의 비유』, 허혁 옮김, 분도출판사.
- 최갑중(2001), 『예수님의 비유-본문, 해석 그리고 설교/적용』, 이레서원.
- 티모시 J. 켈러(2007),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찬규 옮김, UCN.
- Arland J. Hultgren(2000), *The Parables of Jesus - A Commentary*,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Brad H. Young(1998), *The Parables - Jewish Tradition and Christian Interpretation*, Hendrickson Publishers, 101-118.
- David Buttrick(2000), *Speaking Parables - A Homiletic Guide*, Westminster John Knox, 182-185.
- David Wenham(1989), *The Parables of Jesus*, InterVarsity Press, 154-161.
- Robert Farrar Capon(2002), Kingdom, Grace, Judgment - Paradox, Outrage, and Vindication in the Parables of Jesu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 William Barclay(1999), *The Parables of Jesu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79-85.

<Abstract>

Re-reading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from Christian Philosophical Point of View
- From the robbed into the good Samaritan -

Kyung-Jae Lee (Baekseok University)

Interpreting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it has usually been said that the lawyer's question 'who is my neighbor?' was not answered adequately. This article, however, suggests that the parable is rather designed to give a proper answer to that question.

The arguments of this article could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ly, the question 'who is my neighbor?' is in fine to ask 'whom should I love?' Secondly, it is your neighbor that is the one who helps you when you are in danger and need. Thirdly, therefore, 'love your neighbor' means 'love the one who helps you when you are in badly need', so the robbed, for example, should love not the priest nor the Levite, but the Samaritan. Fourthly, seeing the good Samaritan helping another person in need, the robbed, loving his benefactor, ought to assist him. Then, fifthly, the robbed was appeared to the others in need to be a man like a good Samaritan. In fine, the message of this parable could be read as follows: 'from the robbed into the good Samaritan.'

Key words : parable, love your neighbor, the robbed, the good Samaritan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